

새마을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결혼이주여성 공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안 지 민

국문요약

새마을 해외봉사는 새마을정신에 바탕하여 지구촌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는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의 피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새마을 해외봉사단(대학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봉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해외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원주민(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를 대상으로 전 과정의 경험 의미와 본질을 참가자 유형별로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유형의 효과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Giorgi(1975;1997)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외봉사 참여 경험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성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봉사자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긍정적 상호작용임을 보여주었다. 원주민(대학생)은 수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였고, 이주민(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발견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주제어: 새마을 해외봉사, 대학생,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수용성

I. 서론

오늘날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주체, 분야, 대상, 장소 등이 끊임없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이끄는 패러다임의 재정립은 극심한 사회변동이 계속될수록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지니는 변증법적 긴장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김경동, 2006: 297-325) 해외자원봉사는 이러한 노력을 진일보시키고 확대하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의 딜레마를 풀어주는 묘책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지구촌사회가 함께 잘사는 일을 실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저개발국가의 요

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인류에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나눔, 봉사, 창조)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최외출, 2013: 86-87). 저개발국가에 대한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은 인류의 보편적 선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의무(이현정, 2011)를 수행하는 해외원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해외봉사단은 1989년 4월 청와대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창설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90년 9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아시아 4개국에 44명을 파견한 것이 최초이다(외교통상부, 2010). 2000년 이후 과학·정보통신·농업 분야 부처가 전문성을 내세워 직접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전 지구적 공동과제 해결에 동참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ODA를 시작하였다(박순순 외, 2009: 7). 경상북도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농촌발전과 빈곤퇴지에 기여하고자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사회참여 기회 확장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새마을 해외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해외봉사활동 참여자는 목표 구체화, 문화 이해, 업무 추진, 사회적 관계, 자기 성찰 등의 측면에서 개인적 성장(김찬란, 2012)을 하게 되고, 개인의 자아정체성, 관계 형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갖는다(임신자·석류, 2012; 김용주,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외봉사관련 연구는 해외봉사 프로그램 개발(고윤경 외, 2013, 이소정·이정옥, 2013), 해외봉사활동의 참여 주체가 가지는 만족도와 관련 영향요인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창호·김연우, 2012; 김용주, 2011; 이재득, 2011), 해외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와 활성화방안을 살펴본 연구(이석열, 2004; 이성철, 2002; 이형덕, 2002) 등으로 전개되어 다양한 유형의 봉사활동 참여자가 가지는 효과성을 참여 주체별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기존 해외봉사활동이 단일한 유형의 봉사자로 구성된 봉사단²⁾을 위주로 추진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경상북도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학생,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새마을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기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 사업³⁾과 경상북도 다문화행복과의 결혼이주여성 모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⁴⁾을 연합하여 공동 추진한 것이다.

- 1) 자원봉사가 우울수준의 중단적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정은희·강상경 연구(2014)가 있다.
- 2) 해외봉사활동은 국내 자원봉사에 비해 청소년 혹은 대학생, 일반 성인, 의료진 등으로 참여자 유형이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단기로 이루어지는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또한 대학생이 중심이었다.
- 3)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새마을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개팀 90명을 파견하고 있다.
- 4) 결혼이주여성 모국 해외봉사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과 자존감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베트남 모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의 중심에 세계화(globalization)가 있고, 그 안에서 국가, 사회, 개인 간 경계를 달리하는 교류가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외봉사에 참여한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해외봉사에 참여한 개인의 경험은 개인, 사회, 국가의 경계에서 겪는 상호작용이 포함되므로 개방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봉사경험을 참가자 유형별로 확인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는 귀납적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가 최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참여한 봉사자가 해외봉사활동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탐색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1월 필리핀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추진된 경상북도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참여자이다. 이러한 시도는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밝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원주민·이주민 공동 참여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밝혀 확인코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 추진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각각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발전 방향과 인적자원 확충방안의 주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새마을 해외봉사에 관한 연구

새마을 해외봉사는 최외출 연구(2013: 86-87)에서 강조하는 제2의 새마을정신인 나눔, 봉사, 창조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나누어 함께 잘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한국이 2009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한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증대와 차별성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요청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ODA 중에서도 인적 교류 및 투자가 공여국과 수혜국 모두에게 호혜적이며, 장기적인 효과에 더 긍정적(박변순 외의 연구, 2009: 18-19)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성공 경험을 ODA 실천모델로서 개도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마을정신에 바탕한 해외봉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가치인 ‘할 수 있다 정신(can do spirit 또는 candoism)’을 몸소 체득하고, 이러한 경험을 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정신가치는 ‘할 수 있다 정신(can do spirit 또는 candoism)’에 바탕하여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실천 가치를 접목하였고,

사회·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공동체정신은 날로 쇠퇴되고 있는 현대사회 시대적 가치 요구에 부응하여 나눔, 봉사, 창조(최외출, 2010)를 추가한 것이다.

봉사는 인간교육 및 전인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에서 해외봉사는 봉사자 개인에게는 국제 경험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의 효과를 가져다준다(이성철, 2003: 76). 단기 해외봉사는 중·고생 및 대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개발도상국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현지에서 일주일, 3주 혹은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 활동을 펼친다(이창호, 2011: 214).

해외봉사는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활동 공간이 해외의 경제빈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KOICA 등의 정부기구와 월드비전, 기아대책 관련 NGO단체 및 선교단체가 주도하여 해외봉사활동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학교 등으로 주체가 확대되고 활동영역 또한 확장되는 추세이다(서홍란·박정란, 2014).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Baillie·Laurie, 2011).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자원봉사관련 연구에서 해외봉사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관련 연구가 소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다른 국가, 언어, 문화로 인한 제약이 연구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외봉사 관련 연구의 대다수가 귀국한 해외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회상적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이창호, 2011: 9).

지금까지 수행된 해외봉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용주, 2011 ; 이재득,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임신자·석류, 2012; Aaron·Gerald, 2013; Welton, 2014 ; Lough et al, 2014)와 해외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 및 활성화방안을 제안한 연구(이석열, 2004 ; 이성철, 2002 ; 이형덕, 2002, 최창렬, 2007), 해외봉사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조수연·박준홍·이환, 2011; 김매이·조수연·이환, 2003),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Kammann, 2007; 서홍란·박정란, 2014) 등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봉사자의 경험이 대다수 긍정적 효과를 수반함을 발견할 수 있다. Lough et al(2014)에 따르면 해외봉사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국제적인 사회적자본과 관심이 확연히 증가하였고 간문화적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aron·Gerald(2013)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서 세계시민의식 향상과 세계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서홍란·박정란(2014)은 해외봉사 사전·사후 조사를 양적·질적으로 실시하여 해외봉사 후에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Rothwell·Charleston(2013)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용능력 향상에 앞서 진정한 리더십에서 발현된 이타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고, 해외 자원봉사는 봉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사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해외봉사를 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Mumford(2000)는 청년이 해외봉사를 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겪을 수 있으며, 문화적 충격이 클수록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거리감에서 초래되는 문화적 충격은 해외봉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켰다. 이 밖에도 해외봉사가 주목받으며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참여자가 봉사활동의 주체로서 겪는 심리가 모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조문영, 2013)도 있다.

2) 참여주체별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밖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세계화된 시각과 관점을 얻게 되고 자원봉사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Anido, 2013).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봉사가 펼쳐지는 지역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자아로서 성장하게 된다(조용하, 2002).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성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봉사활동 관련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허성호·정태연, 2013 ; 이정미·배진희·김근곤, 2012),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정해·김현주, 2014 ; 서영숙·남진열·김상미, 2012 ; 오효근·김옥, 201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조수연·박준홍·이환, 2011, 엄운섭·안치순·손진아, 2013 ; Beehr et al, 2010 ; Burns et al, 2008) 등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분화되면서 대학 전공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홍기원, 2011; 신미아, 2013 ; 이현신·김찬룡, 2013 ; 박소연·김진경, 2011)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반면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시하는 연구(오주·아영아, 2007; 김기현, 2010)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학생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대학생 개인의 필요와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의 요구가 합치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발전하면서 연령, 직업, 기능 등에 따라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학생 봉사활동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홍기원, 2011).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임파워먼트 효과를 밝힌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Kulik(2007)은 청소년이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갖게 된 것을 인지하거나,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할 경우, 그리고 수혜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정미·배진희·김근곤의 연구(2012)도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임파워먼트를 얻었을 때 사회활동에 요구되는 조직시민행동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Welton(2014)은 봉사활동을 통한 임파워먼트로서 세계시민의식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봉사 프로그램을 대상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지역 주민과 봉사자 모두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체험 학습으로서의 봉사 경험은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고, 공생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한다(조용하, 2002).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류나미·최은희, 2007 ; 허성호·정태연, 2011 ; 허성호·정태연, 2013)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류나미·최은희(2007)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두려움, 인식의 변화, 자기수련, 인생의 양식을 얻음, 삶이 풍성해짐, 이타심으로 크게 분류하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장, 성숙해 가며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타심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허성호·정태연의 연구(2013)에서는 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자기개발 요소와 타인수용,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된 사회성개발 요소에서 태도변화를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보다 앞서 수행된 자발적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허성호·정태연, 2011)에서는 자발적 봉사활동의 유형을 단순실천, 자기분위, 공동체추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Beehr et al(2010)은 대학생의 자원봉사는 자유롭게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에 주목하고 자발적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의 영향관계를 검토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유정숙의 연구(2012)가 유일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사회통합의 방안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참여를 제안하는 연구(박명호·김정현, 2010)와 사회참여의 방안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주목한 연구(배경희, 2013)를 더 살펴볼 수 있으나 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민자의 자원봉사로 주제를 확장하여도 이민자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전체 연구에서 소외된 경향이 뚜렷하다.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Dudley, 2007; Mui et al, 2013)와 노동 시장, 종교적 모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Handy· Greenspan, 2009)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Dudley(2007)는 성인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유용함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원봉사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문화를 익히고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성인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uying Tong(2010)은 이주민에게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개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봉사활동률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의 봉사는 이주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지역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Mui et al(2013)은 뉴욕의 중국 집단거주지(공동체)에서 추진한 중국 출신의 노인이민자가 봉사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임파워먼트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가 훈련과 봉사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를 경험했고 전체의 90%는 그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으며, 61%는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도움을 받은 대상자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Handy· Greenspan(2009)은 이민자의 자원봉사는 직업 경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로의 첫 걸음으로서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akir·Gueri(2011)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출신 이주 여성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부정적이고, 교육의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iem·Stürmer(2012)는 대학생이 다른 나라 출신의 유학생을 지원할 때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에 대해서는 감정이입(공감)이 중요한 동기이나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원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다루더라도 주로 지원의 대상 혹은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주민과 원주민을 동등한 시각에 두고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는 필리핀 태풍(하이엔) 피해지역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15명과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 봉사자는 국내에서 새마을봉사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로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에 소속된 15명 모두 경상북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그 중 3분의 1이 최근 2년 내 새마을 해외봉사를 해본 유경험자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은 필리핀이 모국인 결혼이주여성(국제결혼이주자 혹은 혼인귀화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상북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해외봉사가 가능한 여성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주부였으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해외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참가자 전원(대학생 15명, 결혼이주여성 15명)이 2일간 사전교육을 받았다. 해외봉사활동 전체 일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1월 27일(6박 7일간)까지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1	문경시	여성	20대	대학생
2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3	구미시	남성	20대	대학생
4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5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6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7	안동시	남성	20대	대학생
8	예천군	남성	20대	대학생
9	안동시	여성	20대	대학생
10	김천시	남성	20대	대학생
11	칠곡군	남성	20대	대학생
12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13	구미시	남성	20대	대학생
14	영천시	남성	20대	대학생
15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16	포항시	여성	20대	통번역지원사
17	김천시	여성	20대	주부
18	영주시	여성	30대	주부
19	영천시	여성	20대	주부
20	상주시	여성	20대	주부
21	문경시	여성	30대	주부
22	경산시	여성	20대	주부
23	군위군	여성	30대	방과후학교 교사
24	청송군	여성	40대	주부
25	영덕군	여성	20대	주부
26	청도군	여성	20대	주부
27	성주군	여성	30대	주부
28	칠곡군	여성	30대	주부
29	예천군	여성	30대	주부
30	봉화군	여성	20대	주부

분석을 위한 자료는 봉사에 참여한 30명(대학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해외봉사단과 동행하여 봉사활동 전 기간에 걸쳐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가 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경험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의 회수를 1~3회로 유연하게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면담의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자료에 포함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끌기 내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 표현이 서툰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도록 했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봉사활동 전개과정에서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작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귀납적 연구방법인 질적연구가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후설이 주장하는 의식 지향성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진술하는 언어를 텍스트로 하는 Giorgi(1975)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의 용어로 제시할 수 있고, 선행 연구가 부족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박미은 외, 2012: 215).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유정숙, 2012: 110). 무엇보다 상황적 구조적 진술로서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을 설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는 상황적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미은 외, 2012: 220-221).

Giorgi(1997)는 질적 연구를 후설의 시각에서 기술된 현상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기술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상학적으로 추출한 태도와 사고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불변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찾아낸다. 현상학적인 심리를 유형 분류체계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남인(2005: 94)은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을 좀 더 간략한 절차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피연구자)의 체험을 채집하는 연구자료 수집과정, 둘째, 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으로부터 전체 진술로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해외봉사 참여경험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고 부호화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단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은 제외되었고 공통으로 해당되고 의미 있는 진술은 의미단위 구성에 포함되었다. 넷째, 구성된 의미는 주제와 관련된 묶음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했다. 더불어 류나미·최은희(2007), 유정숙(2012), 최정경(2013)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Ⅲ. 분석결과

해외봉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기술된 해외봉사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기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었고, 이후에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해외봉사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단위를 구분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의미단위는 대학생 167개, 결혼이주여성 82개였다. 이렇게 도출된 의미단위에 대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적 변화와 공동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변화를 크게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자국과 타국, 모국과 이민국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학문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범주화된 구성요소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성 7개이다.

〈표 2〉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새마을 해외봉사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대학 생	더 돕지 못해 안타까움	힘들게 사는 모습이 마음 아픔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가 가진(누리는) 것을 더 주고 싶음
	봉사하는 기쁨	봉사하며 오히려 내가 받는 느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힐링 받음 가르치는 기쁨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	한국에서의 풍족한 삶에 대한 고마움 만족할 줄 몰랐던 나를 반성 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음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	해외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 봉사를 직접 계획하고 싶음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무관심)을 깨달음	중개업소를 통해 돈 때문에 결혼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가까이 하기 두려운 외국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방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마움	어려울 때 도와주어 고마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고마움 함께 하는 즐거움 함께 하면서 느끼는 동료애
	하나 되는 느낌	관심 없던 남에서 친근한 언니·누나로 기피하던 사람에서 함께 나누는 이웃으로 앞으로 함께 하고 봉사하고 싶음
결혼 이주 여성	모국에 대한 애정	고향을 찾은 반가움 모국을 돕는 기쁨 모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모국을 돕는 활동이 계속되길 바램
	봉사할 수 있게 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	한국에 대한 고마움(봉사를 하게 해준 관계자에 대한 고마움)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이란 낯선 대상에 대한 걱정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받던 나에서 주는 나로(달라진 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쁨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함 한국에서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은 마음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의지	한국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음 모국 해외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 봉사를 위한 모임도 만들고 싶음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가족 대소사에 대한 걱정 생업에 대한 걱정
	하나 되는 느낌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서 친해짐 대학생이 착한 동생 같음 한국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음 한국이 자랑스러움

1) 대학생

① 더 돕지 못해 안타까움

연구참여자들은 지붕이 날아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무너진 좁은 집에 대가족이 사는 피해지역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런 모습을 보니 열심히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나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학교 지붕 보수가 더디게 진행되어 답답하다. 학교와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봉사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구호물품을 더 가져오지 못한 것도 후회된다.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웠고 안타까웠어요. (연구참여자 1)

지붕은 다 무너지고 무수히 많은 벌레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중략)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붕, 창문, 계단은 다 허술하고 위험한 집,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없는 집...(중략) 상황이 안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2)

마음만 크고 직접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어서 아쉬웠어요. (연구참여자 3)

물품 배부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12명이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져갔던 것이)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그 쌀이 12명이 먹으면 이틀? 이틀 먹을 수 있다고 하던가? (중략)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연구참여자 6)

② 봉사하는 기쁨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도 자신들을 반겨준 필리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봉사를 받은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과의 놀이시간에서도 자신이 치유를 받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즐거워하니 가슴 뿌듯하다. 제대로 돕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고맙다고 말해주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

아이들이랑 친해졌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주고 이렇게 하니 까 처음에 너무 반겨줘서 당황하기는 했는데...(연구참여자 12)

아이들이 저희들을 따라주고 반겨주니까 즐겁기도 하고 추억 이상으로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중략)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그냥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중략) 제가 힐링 막 되가지고...(연구참여자 1)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인사말, 한글, 한국 동요 수업이 필리핀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어요. (연구참여자 7)

③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

필리핀 태풍 피해를 직접 목격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빈민촌의 피해는 더 심했다. 부서진 좁은 공간에서 12명이 사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이 너무 풍족하게 느껴졌다. 첫날 봉사활동을 했던 학교는 건물 지붕이 날아가 몇몇 교실이 폐허가 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웃으며 자신을 반기고 한국 대중가요를 들려주면서 함께 춤을 추자고 한다. 늘 더 가지지 못해 불만이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필리핀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을 저 사람들에게 주니까 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연구 참여자 2)

태풍피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낄 줄 알았지만 정 반대로 행복과 웃음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고 저 또한 행복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우리나라는 워낙 만족을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맨날 힘들어도 좀 더 벌고, 좀 더 먹고 살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자기가 순수 먹을 만큼만 가지면 자기 가족이 행복하니까 잘 살 수 있다는 이게 좋았어요. (중략) 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조금 느껴 가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내가 누렸던 거랑 내가 쓸데없이 행동했던 것을 한 번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

봉사에 참여해서 바뀐 것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④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

연구참여자는 계속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도 긍정적이다. 해외봉사활동의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는 것도 하고 싶어 했다. 이번 경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오기 전 보다 앞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참여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1)

봉사기획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시간을 짜는지...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보고... (중략) 제가 기획을 하면 되게 일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현지에서 공구도 사고 (연구참여자 1)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번을 통해서...(중략) 무슨 일을 하던 제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연구참여자 13)

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무관심)을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은 사랑 없이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때문에 한국 농촌으로 시집 온 사람으로 보거나, 외국인이나 마약 투약에 걸린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혹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솔직히 생각하면 (중략) 결혼이주 여성하면 당연히 국제결혼 중간회사를 통해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돈을 주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만 생각해서 (중략) 워낙 사회가 이렇다보니까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끄집어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전에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하나?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고 후진국에 살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속내를 알고 보니까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연구참여자 2)

솔직히 집 근처에 성서공단이 있어서 외국인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너무 몰려다니고 무섭게 다니고 하니까.. 이번에 진짜 이주여성들 만나고 인식이 바뀐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3)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주위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외국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연구참여자 3)

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마움

연구참여 대학생들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결혼이주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통역도 해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어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 와서 결혼이주 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동생처럼 돌봐주고 도와주었다.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다.

처음에 2명씩 짝을 지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말하면 알아

들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필리핀 이민 여성들이 같이 들어가서 통역해줘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가자 5)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잘 못하면 도와주고 말해줘서 ... 통역 그런 비슷한 거 해주고 먼저 나서서 해주니까 되게 고마워요. (중략)... 어제도 모르는 것이 되게 많았는데 필리핀 분들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연구참가자 4)

⑦ 하나 되는 느낌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자신들에게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들과 함께 필리핀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다 같이 춤과 노래를 불렀다. 한국에 돌아가도 자신에게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 아니고 쉽게 말 걸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한국 사람이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를 할 때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이 처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뜻 깊은 시간이었는데 처음치고는 화합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대학생 여러분들하고 필리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일을 해주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있으니까 이제 쉽게 말 걸 수 있고 도움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또 기회 있으면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연구참여자 3)

처음 만나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장기자랑을 하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가자 4)

2) 결혼이주여성

① 모국에 대한 애정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 와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봉사활동이 힘들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모국을 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행복한 일이다. 태어나 줄곧 살아온 모국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동시에 여전히 힘들게 사는 모국의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아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이 안타깝다.

봉사활동 같이 왔는데 우리 고향에 와서 ...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기쁜지 ... 여기에 와서 너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연구참여자 16).

9년 만에 필리핀에 온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5년 전, 작년에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못 왔어요. 내가 여기 와서 기쁜 것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분들 너무 힘든데 내가 기뻐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6).

여기 태풍피해 받은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아빠랑 사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나요(연구참여자 19)

우리나라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필리핀사람들이 일 안하고 특히 학교 학부모들이 나서서 하면 되는 일인데 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27)

이렇게 봉사활동 같이 왔는데 우리 고향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중략) 여기 태풍피해 받은 거 마음이 아파서 (연구참여자 22)

필리핀 정부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아요. 직접 우리가 돕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1).

② 봉사할 수 있게 해준 이들이 고마움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고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결혼하면서 떠나온 모국을 한국 봉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찾게 된 것이 가슴 벅차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한국이 고맙고, 함께 온 관계자들, 가족에게도 같은 마음이다. 더불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동료들도 고맙다. 고국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봉사하는 거 한국에 너무 감사해요(연구참여자 17).

선생님들이 이런 봉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연구참가자 25).

우리 시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봐주셨어요. 애들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데 (그렇게 해주셔서) ... 고마워요(연구참여자 19).

우리 신랑한테 제가 필리핀 봉사 간다고 얘기 했어요. “(남편이) 니가 알아서 해. 그냥 알았어요”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연구참여자 21).

한국 사람들 (함께) 여기 왔어요. (덕분에) 여기 사람들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옷하고 식사하고 그냥 이런 거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언니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연구참여자 21).

③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서 겪은 일이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도 없는 데 모르는 사람들과 해외봉사를 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대학생을 만나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학생은 어떤 사람들일지 걱정부터 앞섰다.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제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지만 주로 도움을 받는 일이었다.

처음에 교육 받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누구 뭐뭐 하면서 얘기해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불편해... 네. (중략) 학생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연구참여자 19).

봉사활동이 뭔지 모르고 ... 봉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연구참가자 29)

④ 받던 나에서 주는 나로(달라진 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눔의 즐거움 느꼈다. 한국에서도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회도 보고 통역도 해보기는 처음이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하게 되었다. 또 늘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수시로 도움을 청했다. 모국 사람들도 자신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처음에 나도 경북에 왔을 때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 많이 사용하고 힘들었어요. 물건 살 때도 돈 주고 그냥 잔돈만 받아오고 했어요. 그 때 생각이 나서 대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19).

내 작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마음속으로 행복한 시간을 담아야겠습니다.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고 칭찬도 해주고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 20).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봉사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해보니 용기가 생겨서 앞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연구참가자 26).

⑤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의지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좀 더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모국 봉사도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봉사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전문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부녀회장이예요. 마을회관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2)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잘 살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복 못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한국에 와서 복 받았잖아요. 그런 복 못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6)

이번 같은 프로그램 꼭 해야 되요. 참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들 동의 했었어요(연구참여자 5).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기 결혼이주여성들 모임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중략) 자신이 생겼어요. 변했어요. (연구참여자 19)

한국에 온지 5년 밖에 안 되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어요. 느끼는 것은 한국에 계속 살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우리 땅에 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와서 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27)

⑥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

연구참가자들은 모국을 찾아 즐겁고 행복하지만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고 걱정된다. 아이들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남편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돌아 가면 명절 준비도 해야 한다. 늘 자신이 맡아 했던 밭일도 걱정이다.

여기서 싫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3명이예요. 막내는 5살, 막내 때문에 나 걱정했어요. (중략) 그리고 우리 신랑 밥 안주고 어떻게요? (연구참가자 22)

우리 가족 농사지어요. 내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없으면 집일 걱정되요. (중략) 설 준비 해야 해요. 식구들 모이면 집 청소해야 해요. 떡국 만들어야 되요. 제사음식 만들고... (연구참여자 19)

⑦ 하나 되는 느낌

처음에 낯설기만 했던 대학생도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며 친해졌다. 누나, 언니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묻는 대학생이 동생 같이 느껴진다. 봉사하는 동안 서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된 듯하다.

대학생들 너무 착하고 잘 지냈어요. 짐을 잘 챙겨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20)

필리핀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중략) 그냥 언니, 누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대학생들이) 이거 영어 어떻게 이야기해? 하고 묻고, 언니도 드세요(라고 챙겨주고) 괜찮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연구참여자 21)

대학생들하고 (함께여서)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변했어요. (연구참여자 23)

IV. 분석결과의 논의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에서 확인된 해외봉사 참여 경험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성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에 대해 좀 더 확장된 논의를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해외봉사 현지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자원봉사 경험이 많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치 중시 경향(류기형, 2010 ; 89)과 일치한다. 봉사활동을 이끄는 전통적 동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타주의가 그 배경이 되어, 타인이 가지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기대했던 봉사활동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작용하였다. 실제로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건물 및 지붕 개보수)을 가지지 못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가치인식요인의 하나인 기대합치도⁵⁾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봉사를 하며 경험한 성취감과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던 실패 경험을 통해 스스로 봉

5) 자원봉사활동의 활동가치인식요인은 활동 결과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과 기대했던 성과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될 경우 높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업무인식도, 업무연관성, 기대합치도, 업무적절성 등이 있다. 그중 기대합치도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수행하는 활동내용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다(장보성 외, 2014).

사활동 계획을 세워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긍정적 동기를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이 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수행에 있어 자기 효능감(Bandura, 1995)⁶⁾을 발견하고 신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봉사를 하며 경험한 성취감과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던 실패 경험이 결합하여 스스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제대로 봉사하고 싶다는 긍정적 동기로 발전된 것이다.

둘째,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성찰과 반성은 봉사학습 효과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개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변화를 가져오는 반성과 성찰은 봉사활동 과정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김영인, 2003: 196-198). 본 연구에서 구성요소로서 범주화된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는 필리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얻어진 경험의 의미이다. 필리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임현선, 2006: 139-141).

셋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다문화 수용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과로서 기존 해외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차별화된다. 심층면담에서 진술된 의미단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술과정에서 확인된 긍정적 의미 수준 또한 높았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개인 변화를 직접 진술하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에게 결혼이주여성은 자신과 상관없었던 혹은 가까이 하기 두려운 외국인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함께 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관련 체험이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강진구, 2008; 최석란·김영숙, 2008; 김하나·김홍석, 2012; 주영신·이민창, 2012).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대다수는 결혼이민자를 기피하던 사람에서 함께 나누는 이웃이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 봉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선곡유화 외의 연구(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주요 변인이 가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봉사활동의 경험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해외봉사활동을 하며 진술한 모국에 대한 애정은 반가움과 기쁨, 안타까움이 얽혀 있었다. 모국을 찾은 반가움과 모국을 돕는 기쁨, 모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어려운 모국을 돕는 봉사활동이 계속되길 희망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요컨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모국 봉사활동은 모국을 방문하는 일이고 모국을 돕는 일을 의미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도움이 되는 일(송금)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며(김순옥 외, 2013),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여 정체성 형성과 확립에 기여한다(정인실, 2013).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송지현·이태영, 2014)⁷⁾.

이와 함께 이러한 봉사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관련 기관, 자신이 해외봉사를 할 수 있게 지

-
- 6)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 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 적응과 모국문화 유지라는 이중 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으므로,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많은 경우 결혼과 동시에 언어, 사회, 문화 등이 모국과는 다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노출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다양한 주체가 있었고 그러한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김연수, 2012).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또한 모국 해외봉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적인 가족관계를 인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한국생활에서 모국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다. 스스로 노력하며, 가족의 지지와 관련 기관의 지원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키워왔다(고운선·김태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 낯선 환경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연구 참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대학생과 봉사는 낯설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대학생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봉사활동도 자신이 모국 사람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는 한국 봉사자들을 이끌어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연구 참여 결혼이주여성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Bandura, 1995)과 개인적·대인관계·정치사회 임파워먼트(김안나·최승아, 2013)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의지도 생겼다.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 양순미(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봉사활동 확대에 바탕이 될 것이다. 자기 결정 동기는 봉사활동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김수연, 2009)에 있으며, 이민자의 봉사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앞선 연구(Dudley, 2007; Mui et al, 2013)를 고려할 때 매우 호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두고 온 가족과 자신이 맡아왔던 생업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스스로 노력(이채원 외, 2013)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가치관(황정미, 2010)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함께 한 동료들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주목해야할 결과이다. 다문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보다 진화된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기에도 더욱 그렇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역할의 수준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의 피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새마을 대학생 해외봉사단과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을 대상으로 봉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새마을 대학생 해외봉사단과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이 공동으로 이민자의 모국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 해외

봉사는 전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한 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를 대상으로 전 과정의 경험 의미와 본질을 참가자 유형별로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유형의 효과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이민해 온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수자로 인식되어 자원봉사 수혜자로서의 기회가 더 많았다.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민자 증가와 함께 다방면의 사회통합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진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민해온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주류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민자(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관련 연구도 이민자의 사회참여 제고와 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대학생에게 있어서의 자원봉사는 자기계발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 지식 활용 기회인 동시에 이타심과 인류애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한정란, 2012: 927-928)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동료 봉사자(특히 결혼이주여성)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가 함께 이민자의 모국에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공동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된 개인, 사회, 국가의 경계에서 겪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원주민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봉사자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긍정적 상호작용임을 보여주었다. 원주민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봉사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원주민은 수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였고,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발견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봉사과정에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통역 및 행사 진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이끌 글로벌 인재이자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인적자원으로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민(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빈곤 퇴치에 유용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방안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수혜국 밀착형 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전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셋째,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새마을 대학생봉사단과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 인식과 친밀감이 제고

되었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대학생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세대(연령차)·출신국 혹은 지역 간 심리적 거리감이 해소되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인식이 제고되었고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이다.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전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든 매우 드문 경우였다. 향후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ODA 실천 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ODA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을 원주민과 이주민이 협력하여 이주민의 모국에 직접 소개·전파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콘텐츠연구」, 4: 53-77.
- 고유경·김민경·박정서·강승혜. (2013). 단기 해외봉사단 한국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1-29.
- 김기현. (2010).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동기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20: 33-71.
- 김대옥·이승중. (2011).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미시 새마을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73-195.
- 김매이·조수연·이환. (2003). 자원봉사관광 참여자의 사전교육만족, 방문만족, 여가만족 및 재참여 의도의 관계 분석. 「홀리스틱교육연구」, 9(1): 75-96.
- 김순옥·임현숙·정구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11): 221-235.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
- 김영인. (2003). 시민성 함양 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구: 봉사학습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42(2): 185-210.
- 김찬란. (2011). 해외봉사활동과 글로벌 여성 리더십 함양. 「여성연구논총」, 26: 159-189.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
- 김한나·김홍석. (2012).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토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2호」 91-113.
- 류기형. (2012). 자원봉사동기유형과 보상인식 및 자원봉사과업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7(4): 75-96.
- 류나미·최은희. (2007). 대학생이 경험하는 봉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1-26. 한국청소년학회
- 서영숙·남진열·김상미. (2012). 고교시절 사회봉사활동 관련요인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285-30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송지현·이태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41-266.
-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한국농촌사회학회
- 오주·아영아. (2007).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31-53.
- 오효근·김욱. (2012).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청소년연구」, 65: 243.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소정·이정옥. (2013). 몽골 해외봉사자를 위한 유아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4): 435-459
- 이재득. (2011). 한성대학교 초기 해외봉사와 학생들이 의식변화. 「소통과 인문학」, 12: 5-31.
- 이정해·김현주. (2014). 물질적 지원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 73-95. 한국청소년학회.
- 이석열. (2004).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논총」, 25(1): 43-69.
- 이성철. (2002). 대학 해외봉사활동 현황과 과제. 「자원봉사」, 1(1): 77-89.
- 이성철. (2003). 대학 해외봉사활동 현황과 활성화방안.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7(1): 75-96.
- 이정미·배진희·김근곤. (2012). 자원봉사 직무특성, 자원봉사 만족도, 임파워먼트가 대학생의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227-248. 한국청소년학회.
- 이창호·김연우. (2012).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243-272.
- 이창호. (2011). 해외봉사활동이 수혜국가 아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캄보디아 빈곤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3): 213-239.
- 김용주. (2011). 소셜네트워크 형성효과로 본 대학생 해외봉사: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사례를 중심으로. 「소통과 인문학」, 12: 61-87.
- 이형덕. (2002). 해외봉사단 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지구촌가족」, 21: 16-21.
- 이채원·박현선·노연희·이상균. (2013).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역할 찾아가기 과정. 「한국가족복지학」, 41: 251-279.
- 외교통상부. (2010). 2010년도 국정감사 위원요구자료
- 박명호·김정현. (2010). 다문화가정의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복지행정논총」, 20(1): 71.
- 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박번순·정호성·김화년·이종규. (2009).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제730호.
- 박소연·김진경·이택영. (2011).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376.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 33-54.
- 서홍란·박정란. (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21(2): 139-168
- 신미아. (2013). 간호 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1024.
- 엄운섭·안치순·손진아. (2013).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 관련 교육경험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221-242.
- 이현신·김찬룡. (2013). 체육전공 대학생의 전공연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221-242.
- 이현정. (2011). 해외원조의 새로운 윤리적 시각: 세계시민주의. 「윤리연구」, 82: 193-212.
- 임신자·석류. (2012). 태권도학과생들의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한 자아정체성 탐색, 「국기원 태권도 연구 제3권 제2호」, 35-54.
- 임현선. (2006). 경력일치와 전문성 인식에 따른 성인자원봉사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인력개발연구」, 8(2): 137-158.
- 최석란·김영숙. (2008). 유아교사 및 예비교사의 편견 경험과 유아교육기관 다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 「생태유아교육연구」, 7(2): 105-121.
- 장보성·남영준·이준기. (201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17.
- 정인실. (201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자아정체감 연구: 마르시아의 정체감 지위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1(4): 315-339.
- 정은희·강상경. (2014). 자원봉사와 우울 궤적의 종단적 관계: 세 연령집단 간 다집단 비교. 「사회복지연구」, 45(1): 203-230.
- 조수연·박준홍·이환. (2011).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여가로서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스포츠문화 과학연구지」, 18권: 13-32. 고려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 조용하. (2001).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고찰: 봉사학습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9(3): 243-268. 한국청소년학회.
-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사회 ‘반빈곤’과 ‘대학생’의 지형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 주영신·이민창. (2012). 대학생의 다문화 청소년 및 정책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1): 77-102.
- 최외출. (2010).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전략방향.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충청남도 새마을회.
- 최외출. (2013). 새마을운동 연구경향과 ‘새마을학’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61-92

- 최창렬. (2007). 토목공학을 통한 해외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대한토목학회지」, 55(5): 118.
- 한정란. (2012). 노인 휴대폰활용교육 대학생 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동기, 성취, 만족도, 「한국노년학」, 32(3): 927-939.
-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홍기원. (2011).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특징분석. 「예술교육연구」, 9(1): 161-182. 한국예술교육학회.
- Anido, Cecilia Isidro. (2013).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1): 115-126.
- 허성호·정태연. (2013).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2): 133-158. 한국심리학회.
- Baillie Smith, Matt & Laurie, Nina. (2011).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and neoliberal professionalisation toda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6(4): 545-559.
- Bandura. A(Ed.).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4.
- Beehr, Terry A., LeGro, Kimberly., Porter, Kimberly., Bowling, Nathan A., & Swader, William M. (2010). Required Volunteers: Community Volunteerism Among Students in College Classes. *Teaching of Psychology*, 37(4): 276-280.
- Burns, David J., Reid, Jane., Toncar, Mark., Anderson, Cynthia., & Wells, Cassandra. (2008). The Effect of Gender on the Motivation of Members of Generation Y College Students to Volunteer.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19(1): 99-118.
- Cakir, S. Gulfem. & Yerin Guneri, Oya. (2011). Explor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empowerment of Turkish migrant women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6(3): 223-233
- Dudley, Lesley. (2007). Integrating Volunteering into the Adult Immigrant Second Language Experience,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La Revue canadienne des langues vivantes*, 63(4): 539-561.
- Giorgi, Amedeo.(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 Giorgi, Amedeo.(1975),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betwee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and Behaviorism: A Beginning Dialogue, *Behaviorism*. 3(2): 200-212.
- Handy, Femida. & Greenspan, Itay. (2009). Immigrant Volunteering: A Stepping Stone to Integ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6): 956-982.

- Horn, Aaron S. & Fry, Gerald W. (2013). Promoting Global Citizenship Through Study Abroad: The Influence of Program Destination, Type, and Duration on the Propensity for Development Volunteerism,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4(4): 1159-1179.
- Kammann, Katherine A. (2007). *The Experienced Volunteer: Creating a Volunteer Abroad Program for Retired Adults*, Capstone Collection, 781.
- Lough, Benjamin J., Sherraden, Margaret Sherrard., McBride, Amanda Moore., & Xiang, Xiaoling. (2014).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ervice on the development of volunteers' intercultural rel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46: 48-58.
- Mui, Ada C., Glajchen, Myra., Chen, Huajuan., & Sun, Juanjuan. (2013). Developing an Older Adult Volunteer Program in a New York Chinese Community: An Evidence-Based Approach. *Ageing International*, 38(2): 108-121.
- Mumford, David Bardwell. (2000). Culture Shock Among Young British Volunteers Working Abroad: Predictors, Risk Factors and outcome, *Transcultural Psychiatry*, 37(1): 73-87.
- Rothwell, Andrew. & Charleston, Brandon.(2013), International volunteering: employability, leadership and more, *Education + Training*, 55(2): 159-173.
- Siem, Birte. & Stürmer, Stefan. (2012). Cross-Cultural Volunteerism: Examining the Effects of Intercultural (Dis)Similarities on Volunteers' Motivations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544-557.
- Welton, Anna. (2014). The Global Citizen Revisited: Building Critical Consciousness In Youth Volunteering Abroad. *The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ist*. 51(4): 51-60.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f Overseas the Saemaul Volunteer Experience: Focusing 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Ahn, Jimin

The Saemaul Movement's overseas volunteer service aims to fulfil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s based on the spirit of the movement. I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 volunteers belonging to the Saemaul Volunteer Service Group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which was organized to conduct relief operations for those affected by Typhoon Haiyan in the Philippines in 2013. Researching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whole process of volunteer operations—by participant type, local citizens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has academic importance and also helps i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and significance of a new project.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ology of Giorgi (1975; 1997), experiences of overseas volunteer service groups were surveyed under seven categories for college students and seven categories for immigrant women. We found that Saemaul's overseas volunteer operations, for which local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worked together, produced positive interactions, which surpassed those that occur at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Local citizens (college students) ca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neficiaries, and were thereby able to be more accommodating of multicultural diversity; women immigrants discovered their global capabilities, which increased their self-confidence as reliable,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Saemauloverseasvolunteerservice, college students,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accommodation of multicultural diversity

